

# 금남로에서 탐관오리 사냥이 시작된다

## 문화예술로 만나는 '오월'

### ⑦ 청소년 축제 '레드페스타'

'청년들이여 컬러파우더를 뿌려 탐관오리를 사냥하자' 금남로에서 펼쳐지는 유쾌한 청소년 축제 2016 레드페스타가 '탐관오리사냥'을 주제로 오는 21일 열린다. 올해는 1980년 5월 광주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5·18 가치와 의미를 즐겁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배우는 행사로 꾸며진다.

축제장은 크게 '탐관오리사냥터', '시민오리 놀이터', '시민오리 마을'로 구성된다.

대표 프로그램은 무등빌딩 앞에서 부당한 권력자인 '탐관오리'에 맞서 시민오리들이 컬러파우더를 뿌리며 항쟁하는 '오리사냥'이다. '사랑, 평화, 자유, 민주'의 씨앗을 상징하는 형형색색 컬러파우더를 검은 배에 탄 탐관오리에게 뿌리며 사냥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민오리들이여, 탐관오리에 저항하고 맞서라!'를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룬 오월광주와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퍼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차 '해방광주', 2차 '최후의 항전'으로 나눠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맞서 항쟁하는 시민군 상황을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 맞게 재해석했다.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만들어 간다'는 가치를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컬러파우더는 옥수수전분으로 만들어져 인체에 해가 없다.

준비물은 선글라스, 힌디, 같은 편임을 확인하는 손수건(반다나)이다. 오후 5시 반부터 파우더, 컬러볼과 함께

선착순 배포한다.

'탐관오리사냥'은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진행되며 18개 광주인권현장을 상징하는 '시민오리 퍼레이드', 시민들이 컬러파우더를 동시에 하늘에 뿌리며 오월광주와 영웅들에게 보내는 헌화 '메이플러워', 탐관오리에 맞서 컬러파우더를 뿌리는 '오리사냥'으로 구성된다.

체험프로그램 '시민오리 놀이터'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놀이, 사랑하고, 기억하라'를 주제로 전일빌딩 인근에서 펼쳐진다. 5·18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 '사랑', '평화', '자유', '민주'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시민 18팀이 창작한 풍선으로 만들어진 대형오리 인권덕(Duck) 프로그램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카드뉴스 형태로 만날 수 있는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컬러파우더 놀이터인 '가지각색, 형형색색', 빨간장미 종이접기 '5월의 영웅께', 5·18 보드게임 '도청을 지켜라', 시민오리 대표를 뽑는 '오리대통령선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일대에 마련되는 '시민오리 마을'은 축제를 즐기 시민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오거추', '호니왕타코', '후르츠쥬' 등 다양한 푸드트럭에서 이색적인 음식들을 만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edfesta.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415-354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21일...계엄군에 맞서는 시민군 재연

### 오월영웅들에 바치는 오마주 축제

### 평화·민주정신 구현 체험행사도



2016 레드페스타 '탐관오리사냥'이 오는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탐관오리에 맞서 컬러파우더를 뿌리는 '오리사냥' 프로그램. <청년문화허브 제공>

## 오월창작가요제 '미스터 험블' 대상

### 전국서 424개팀 신청

제6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서 '미스터 험블' 팀이 '원숭이와 바나나'로 대상(상금 1000만원)을 차지했다.

지난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이번 경연에서 '미스터 험블'은 가난한 원숭이와 부자 원숭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계층 구조를 유쾌하게 꼬집는 노래로 영예를 안았다. 멤버들은 원숭이 모자를 쓰고 나오는 퍼포먼스와 강렬한 사운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본선 입상곡들은 실황 음반 발매 작업

을 거쳐 온라인 음원 사이트 등을 통해 대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금상=달세뇨 ▲은상=파파스 중창단 ▲동상=웨이스트드 자니스 ▲장려상=경지, 그런 사람들, 김진솔, 비타, 빌리 카터, 세월을 프로젝트. 한편 이번 가요제는 전국 424팀이 신청해 1차, 2차 예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자세한 정보는 오월창작가요제 홈페이지(www.maymusicfesta.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82-0518.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퓨전국악으로 만나는 '오월의 신부'

### 20일 광산문화회관 공연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오는 20일 오후 8시 광산문화회관에서 퓨전국악연주회 아이리아의 '국악으로 만나는 오월의 신부' 공연을 개최한다.

'2016 광산 오월문화제'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시인 황지우의 첫 희곡인 '오월의 신부'를 국악 반주에 맞춰 방수미 명창, 연극배우 박규상, 고조영 등이 낭독한다. 특히 '오월의 신부'를 쓴 시인 황지우 교수가 특별출연한다. '오월의 신부'는 5·18민주화운동 마지

막 날인 80년 5월 26일 당시 도청을 지켰던 교사, 재수생, 웨이터 등 시민들과 죽기 직전 도청 커튼을 찢어 면사포를 만들어 혼례를 올린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다.

공연은 프롤로그, 관천동 낙원의 축일, 오 청춘은 괴로워라, 개기일식, 정현 사랑, 마지막 목소리들, 에필로그로 총 7막으로 구성되어있다. '무등의 아침', '마른잎 다시 살어나', '평화', '임을 위한 행진곡' 등 14곡을 연주하고 낭독한다. 관람료 1000원. 문의 062-960-8989, 8833.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조영남 그림 代作 논란

### 무명화가 "8년간 300여점 그려줬다" 조씨 "조수 함께 작업...미술계 관행"



지난 2011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조영남씨가 미술관에 기증한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사기죄 적용 검토

### 조씨 사무실 등 압수수색

'화개장터', '달라일라' 등의 곡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이자 화투같은 색다른 소재를 활용한 미술 작품을 선보여 화가로서도 명성을 쌓은 조영남(71)이 '대작' (代作) 논란에 휩싸였다.

조 씨의 작품을 대신 그렸다는 60대 남성의 제보를 받은 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조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조 씨 측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 작품은 극히 일부"이며 조수를 두고 작업하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조 씨의 작품을 대신 그렸다고 주장하는 무명 화가 A씨(60)가 검찰에 조 씨의 대작 사실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속초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조영남의 그림 300여 점을 8년간 대신 그렸는데 조 씨가 이를 조금 손을 본 뒤 사인하고서 전시·판매해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기죄를 적용키로 하고 대작 작품의 수와 판매량, 판매액 등을 보다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 씨는 17일 "6개월에 한번씩 전시를 열 때 대중이 좋아할 일부 작품에 한해 조수와

작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화투 작품에서 조수의 기술이 들어간 건 인정한다"면서 "내가 비슷한 패턴의 작품을 여러 개 작업하는 경향이 있다. 바쁠 때는 조수를 기용했고 함께 하는 사람이 3~4명이다"고 덧붙였다.

A씨가 그린 그림을 판매해 수익을 남겼다는 주장과 달리 A 씨의 도움을 받은 작품은 한점도 판매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조 씨의 대작 의혹은 이를 미술계 관행으로 받아들이는지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조 씨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내외 작가들 대부분이 조수를 두고 작품활동을 하며 이는 미술계 관행이라는 논리를 펼쳤기 때문이다.

미술계에선 '관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조 씨 측 주장처럼 문하생이 조 씨의 작품을 도와주거나 협업 형태로 다른 작가와 함께 작품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관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리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다.

검찰은 "조수를 이용한 대작이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작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영남은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겠다"며 "이러한 논란이 인데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가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72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6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부처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니은행 B10 5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히 제10-1097784호  
특히 제10-0562035호  
특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넌 시공후 시공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